

#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출처 : State of Green  
일자 : 2021년 9월 7일

**설비용량 604MW를 갖춘 크리에게르스 플라크(Kriegers Flak)는 약 60만 덴마크 가구의 연간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덴마크 해안 외곽에 위치한 발트해에 있다.**

9월 6일 덴마크 왕세자는 덴마크 산업재무부 장관인 시몬 콜레루프(Simon Kollerup)와 함께 크리에게르스 플라크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바텐팔(Vattenfall)의 604MW의 발전 개시를 선언하며 취임식을 가졌다.

72대의 해상풍력 터빈으로 60만 덴마크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는 크리에게르스 플라크는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이다. 크리에게르스 플라크는 덴마크의 풍력 발전 생산량을 16% 가량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바텐팔의 CEO인 안나 보리(Anna Borg)는 "크리에게르스 플라크는 친환경 전환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덴마크 가정과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덴마크 해안에서 15-40km 떨어진 발트해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뫼(Møn) 섬의 클린톨름(Klintholm) 항구에서 제공된다.

## 그린 에너지를 통해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증진

취임식에서 덴마크 산업재무부 장관인 시몬 콜레루프(Simon Kollerup)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의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톨름(Klintholm) 항만과는 별도로 약 600-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몬 콜레루프는 "해상풍력에서 육상 및 태양광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만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몬 장관은 또한 녹색 전환은 숙련된 노동을 요구하므로 향후 기술 향상 및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 덴마크 해양기금(Danish Maritime Fund), 윈드텐

마크(Wind Denmark), 덴마크 에너지(Danish Energy), 덴마크 해운(Danish Shipping) 및 민간 기업들은 덴마크의 해상 풍력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영향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때마다 덴마크 산업 전반에 걸쳐 14,600인년\*에 달하는 노동력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크리에게르스 플라크의 출범은 해당 요소 및 기술자를 이전하고 풍력 단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덴마크 해운(Danish Shipping)의 기대와 잘 맞아떨어졌다.

\* 연간 노동자 한 명의 노동 시간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녹색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우리 사회에 녹색 전환으로 향하는 초석이다. 또한, 해상풍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운 회사의 친환경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한다”고 덴마크 해운의 전무 이사인 안네 H. 스테펜센(안네 H. 스테펜센)는 말했다.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운영 기간 동안 설치, 건설, 서비스 및 종국의 해체를 위해 최소 17가지 유형의 선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